

## 양호시책 개선에 앞장



양호교사의 입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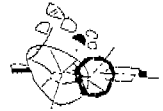
성신여사대부국 양호교사 오 경 은

올도년의 마지막 한 장의 캘린더가 한 해 동안 뜻다 이루어진 소망들로 아쉬움을 지닌 채 남아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는 학교 보건업무를 이행하는데 난점이 돌발하여 양호교사로서의 책임이자 국가적인 방역 사업을 능률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집니다.

항시 학교 보건업무에 임할 때 느끼던 크고 작은 고통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 양호교사는 연중 1회 내지 2회의 강습을 받는데, 강습 때마다 양호교사 업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교육이라 합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일 주일에 한 번 계절과 변 화되는 환경에 알맞은 내용으로 20분 간 방송을 통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보건 교육자료를 수집하는데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시 당국에서 가끔 교육자료를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되어 여러 가지 책에서 자료 수집을 합니다. 대부분의 양호교사들이 다양한 내용(교학년 여



학생의 순결교육 자료가 포함되면 좋겠음)으로 엮어진 보건교육 책자가 있었으면 하고 원합니다. 1969년도에 발행된 보건교육이란 책이 있는데, 읽다 보면 통째나 그외 내용이 날로 발전하는 의학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의학발전과 대등한 보건 지식을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의 책자를 양호교사들이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가지 방역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내 소독이나 학교 주변 정화작업은 비교적 무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방접종 때의 고통은 양호교사 업무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크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한때 언론기관에서 떠들석했던 M교의 사건으로 인해 양호교사의 주사 행위가 문제시 되더니 이제는 다시 주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느 해보다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했던 때문에 전염병 발생시기인 여름과 가을을 보내면서 혹시 전염병으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협회에 바라는 것은 우리들 양호교사들이 좀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나 뜨는 사태 발생 이전에 지시당국에 건의 내지는 협조 요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다망하신 협회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도합니다.